

“예술의 본질 찾겠다”

**2016 광주비엔날레
마리아 린드 예술총감독**

상업예술시장 팽창으로
예술 도구화·자본 영향
특정 지역색 보여주기 보다
미래 비출 플랫폼 만들 것



마리아 린드 예술총감독은 내년 광주비엔날레를 전문가, 관객, 작품, 지역 주민들이 함께 조우하는 플랫폼으로 만들 계획이다. /최현배기자 choi@

반가운 얼굴이다. 마리아 린드(Maria Lind·49) '2016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은 지난 2013년 광주비엔날레 국제큐레이터 코스 지도교수를 맡으면서 광주와 인연을 맺었다. 그 해 광주일보와 광주비엔날레재단이 공동 주관한 '광주문화포럼' 강사로도 나서 광주 시민과 예술가들을 만나기도 했다. 당시 그녀는 “작가·작품·주제의식을 넘어 지역과 호흡해야 좋은 전시”라는 말을 강조했다.

마리아 린드는 “전세계에 있는 200여 개 비엔날레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흥미로운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으로 선정돼 영광스럽고 기쁘다”라며 입을 열었다.

이어 “광주비엔날레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살아있는 기념비적 예술 행사이고, 다른 비엔날레와 달리 지역과 밀착해 있으면서 지역의 특성을 풍부하게 갖고 있어 나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행사”라고 말했다.

마리아 린드는 그동안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반영한 프로젝트를 주로 진행해왔다. 그녀가 기획해온 전시들은 소외된 지역과 공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때문에 광주비엔날레의 지향점과도 연결된다. 그녀는 특히 광주비엔날레의 예술성을 높게 평가했다.

“광주비엔날레는 회를 거듭할수록 전시 수준이 높아졌다. 결코 쉽지 않은 것인데 광주비엔날레가 큐레이터를 잘 선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역대 감독 모두가 자신의 경력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에 예술 감독이 됐고, 그래서 실험적인 장치들을 통해 흥미로운 전시를 보여준 것 같다. 또 광주비엔날레의 장점이자 자랑은 처음부터 비엔날레가 열리는 광주라는 도시에 전략해 왔다는 점이다.”

그녀는 내년 행사의 초점을 ‘예술성의 회복’ ‘예술의 본질 찾기’에 맞출 계획이다. 광주비엔날레에서 다시 한번 예술을 무대의 한 중앙으로 가져오고 싶다는 것이다.

“상업 예술 시장이 팽창해 팽창하면서 예술이 도구화되고 있고, 특정한 자본력에 이용당하고 있다. 이제는 예술을 원점으로 가져다 놓고 싶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술이 가지고 있는 내적 본질을 최대한 많이 이끌어낼 것이다. 미래에 대해 상상하고, 투자할 수 있는 것 또한 예술의 본질이다. 예술이 우리 삶의 지진계로서, 탐지권으로서 우리의 현주소와 미래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다.”

“협력 기관들이 광주를 중심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예술이 현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을 주제로 광주에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각국에 떨어져 있는 점들을 모아 다시 선으로 이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자원들을 광주비엔날레로 끌어들이 시너지 효과를 높일 것이다. 이 시너지는 전시 작품에서 이뤄지기도 하고 기관들끼리 이뤄지기도 할 것이다.”

광주비엔날레는 오쿠이 연우저, 마시밀리아노 지오니, 제시가 모건 등 그동안 연이어 서구권 큐레이터들이 감독을 맡으면서 아시아보다는 서구권의 색깔이 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대미술 작가들은 한 지역에 머물지 않는다. 세계 각국에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그런 작가들과 작업에서 특정 지역의 색깔만을 부각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나도 북유럽 출신이다. 서구권을 영향 받은 것만은 틀림없다. 하지만 다양한 연구를 해왔다. 나 개인적으로도 그동안 페미니스트적 관점에서 훈련을 받아왔고 권력 구조에 저항해 왔다. 이번 전시에서도 특정한 색깔을 보여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현대미술의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현대미술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믿고, 그것들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광주비엔날레가 장소적인 의미를 넘어서 전문가, 관객, 작품, 지역 주민들과 조우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의 미래를 비추볼 수 있는 플랫폼으로의 전시를 만들 것이다.”

한편 마리아 린드는 스톡홀름 현대미술관 큐레이터, 국제큐레이터협회 이사, 제1회 비엔날레비엔날레 특별전 큐레이터, 뉴욕 바드 칼리지 큐레이터학 연구센터 디렉터 등을 역임했다.

“현대미술 작가들은 한 지역에 머물지 않는다. 세계 각국에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그런 작가들과 작업에서 특정 지역의 색깔만을 부각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나도 북유럽 출신이다. 서구권을 영향 받은 것만은 틀림없다. 하지만 다양한 연구를 해왔다. 나 개인적으로도 그동안 페미니스트적 관점에서 훈련을 받아왔고 권력 구조에 저항해 왔다. 이번 전시에서도 특정한 색깔을 보여주지는 않을 것이다.”

한편 마리아 린드는 스톡홀름 현대미술관 큐레이터, 국제큐레이터협회 이사, 제1회 비엔날레비엔날레 특별전 큐레이터, 뉴욕 바드 칼리지 큐레이터학 연구센터 디렉터 등을 역임했다.

“현대미술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믿고, 그것들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광주비엔날레가 장소적인 의미를 넘어서 전문가, 관객, 작품, 지역 주민들과 조우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의 미래를 비추볼 수 있는 플랫폼으로의 전시를 만들 것이다.”

한편 마리아 린드는 스톡홀름 현대미술관 큐레이터, 국제큐레이터협회 이사, 제1회 비엔날레비엔날레 특별전 큐레이터, 뉴욕 바드 칼리지 큐레이터학 연구센터 디렉터 등을 역임했다.

“현대미술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믿고, 그것들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광주비엔날레가 장소적인 의미를 넘어서 전문가, 관객, 작품, 지역 주민들과 조우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의 미래를 비추볼 수 있는 플랫폼으로의 전시를 만들 것이다.”

한편 마리아 린드는 스톡홀름 현대미술관 큐레이터, 국제큐레이터협회 이사, 제1회 비엔날레비엔날레 특별전 큐레이터, 뉴욕 바드 칼리지 큐레이터학 연구센터 디렉터 등을 역임했다.

“현대미술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믿고, 그것들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광주비엔날레가 장소적인 의미를 넘어서 전문가, 관객, 작품, 지역 주민들과 조우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의 미래를 비추볼 수 있는 플랫폼으로의 전시를 만들 것이다.”

한편 마리아 린드는 스톡홀름 현대미술관 큐레이터, 국제큐레이터협회 이사, 제1회 비엔날레비엔날레 특별전 큐레이터, 뉴욕 바드 칼리지 큐레이터학 연구센터 디렉터 등을 역임했다.

“현대미술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믿고, 그것들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광주비엔날레가 장소적인 의미를 넘어서 전문가, 관객, 작품, 지역 주민들과 조우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의 미래를 비추볼 수 있는 플랫폼으로의 전시를 만들 것이다.”

한편 마리아 린드는 스톡홀름 현대미술관 큐레이터, 국제큐레이터협회 이사, 제1회 비엔날레비엔날레 특별전 큐레이터, 뉴욕 바드 칼리지 큐레이터학 연구센터 디렉터 등을 역임했다.

“현대미술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믿고, 그것들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광주비엔날레가 장소적인 의미를 넘어서 전문가, 관객, 작품, 지역 주민들과 조우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의 미래를 비추볼 수 있는 플랫폼으로의 전시를 만들 것이다.”

한편 마리아 린드는 스톡홀름 현대미술관 큐레이터, 국제큐레이터협회 이사, 제1회 비엔날레비엔날레 특별전 큐레이터, 뉴욕 바드 칼리지 큐레이터학 연구센터 디렉터 등을 역임했다.

“현대미술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믿고, 그것들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광주비엔날레가 장소적인 의미를 넘어서 전문가, 관객, 작품, 지역 주민들과 조우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의 미래를 비추볼 수 있는 플랫폼으로의 전시를 만들 것이다.”

동학운동가 아들과 21세기 소년의 만남

배봉기 장편동화 ‘별빛 아이’



“사람은 모두 저 하늘처럼 높고 별처럼 귀하다. 너도 그런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라.” (‘별빛 아이’ 중에서) 그동안 어린이, 청소년 작품뿐 아니라 소설 창작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활발하게 활동을 해온 배봉기(광주대 문장과 교수) 작가가 장편동화 ‘별빛 아이’(북멘토)를 펴냈다.

작품은 동학의 경전에 얽힌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쓰인 ‘역사 판타지’물이다. 서사의 배경은 혼란스러운 조선 후기, 동학이 백성들의 삶 속으로 급속히 퍼져나 가던 무렵과 맞물린다. 그러나 스토리는 조선에만 한정하지 않고 21세기 현실과 접목해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둔다.

일반적인 판타지와 달리, 역사를 배경으로 한 판타지는 상상의 세계와 역사적 사건이 맞물리는 지점을 주목한다.

이야기는 19세기 소년과 21세기 소년의 만남에서 비롯된다. 시험과 경쟁에 내몰린 21세기 소년민수는 어느 날 밤 하늘을 바라보다가 하늘에서 빛 한줄기가 떨어지는 것을 본다. 그 빛을 따라가니 탕기머리를 하고 저고리와 바지를 입은, 상처투성이의 아이가 가던 무렵과 맞물린다. 그러나 스토리는 조선에만 한정하지 않고 21세기 현실과 접목해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둔다.

과거로부터 현재로 날아온 소년과 학교 성적과 신분이 현실을 규정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21세기 소년과의 만남은 그 자체로 긴장감을 더해준다.

작가는 “동학은 물질을 좇다가 사람들의 생명마저 가볍게 여기게 된 현재의 우리 사회가 깊이 되새겨 봐야 할 소중한 교훈을 남긴 것”이라며 “‘사람은 모두 하늘처럼 높고 귀중하다’며 햇빛을 높이 든 우리 선조들의 혁명적인 가르침은 이 시대에 더욱 빛날 것 같아 빛나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한다.

한편 배봉기 작가는 소년중앙문학상에 동화, 스포츠서사·영화진흥공사 공모에 시나리오가, ‘문학사상’ 공모에 장편 소설이 당선돼 등단했다. 지금까지 ‘겨울 날’, ‘연암 박지원’ 등을 펴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윤선도 문집 ‘고산유고’ 완역 출간

김대현 전남대 국문과 교수



전남대 김대현 교수(국문과·한문 고전번역협동과정 교수, 호남한문 고전연구실 책임 교수·사진)가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1587~1671)의 문집 ‘고산유고(孤山遺稿·정미문화사)’를 완역, 출간했다.

그동안은 ‘고산유고’에 실린 시조, 한시 등 일부 작품만 번역 출간됐고, 완역 출간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선도는 시조 ‘어부사시사’를 남긴 한국 시조 문학의 대가로 송강 정철과 함께 국문 시가의 쌍벽을 이루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이번 출간은 ‘고산유고’ 번역의 중요성을 인식한 해남 윤씨 문중이 지난 2007년 김교수에게 번역을 의뢰해 시작됐다. 예산 문재 등으로 출간이 지연되다 증손 윤형식씨를 비롯한 문중에서 모은 헌성금으로 출판하게 됐다. 김수는 고산 연구 대가 박준규 교수(전남대 국문과 명예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2002년부터 호남한문고전연구실을 이끌며 호남 한문문집·지방지·문중문헌을 집중적으로 연구, 기초 DB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2009년부터 3년간 해남 윤씨 문중 문헌을 집대성, ‘역주 고산선생연보’ 등 10권을 출간했다.

김 교수는 “‘고산유고’는 한국 문학사 뿐만 아니라 당시 사상사에서 고산 선생의 위치를 볼 때 번역이 시급한 책이었다”며 “고산의 작품은 ‘고산유고’에 실리지 못한 백여 수가 넘는 시와 산문 작품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향후 이들 전 작품을 모두 정리 번역해 더욱 완전한 ‘고산유고’를 출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등산 시인 이성부를 만나다

담양 생오지문예창작촌 문예지

담양 생오지문예창작촌(대표 문순태)에서 발행하는 문예지 ‘창작촌’(통권 3호)가 나왔다.

문학마져 날로 중앙집권화 되어가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뜻있는 문인들이 의기투합해 만든 ‘창작촌’은 한국문학의 내일을 열어 갈 문예창작 공간을 지향한다.

이번 창간호에는 무등산 시인 이성부를 만나다’를 특집으로 꾸며, 그의 삶과 문학을 다각도로 조명했다. 김석학, 조병기, 문순태, 이경철 문인들이 각각 이성부 시인의 시와 인생을 풀어냈다.

기성 문인 작품으로는 김중광 작가의 소설을 비롯 태두주, 니종영, 조진태, 복효근, 박지영 시인 등의 시, 그리고 이종문 시조시인의 시조가 수록되었다. 이밖에 ‘창작촌’ 신인문학상 소설 부문 수상작인 성보경 씨의 ‘거푸집’과 문리보 편집인의 문학기행 ‘타류(鵜流)’는 지금도 흐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호에는 전국청소년문학상 수상작들도 수록돼 있어 청소년 문학의 현주소를 가늠할 수 있다. 소설 부문 장원 김아리영의 ‘먼저 쌓인 기타’, 시 부문 장원 허은정의 ‘손’ 등 모두 8명의 작품은 창작촌이 발굴한 소중한 수확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U대회 기간 미디어아카데미·오픈스튜디오

광주문화재단, 4~11일

광주문화재단은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2015미디어아트페스티벌에 맞춰 미디어아티스트의 작업공간을 볼 수 있는 오픈스튜디오와 미디어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오픈스튜디오 프로그램은 4~11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며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권승찬, 김자이, 송승민, 이조호, 정선휘 작가와 미디어 그룹 비비람팀(박성화 대표) 등 총 6명의 입주작가들이 참여한다.

미디어아카데미(11일 오후 2시~5시)는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스튜디오에서 ▲권승찬씨의 ‘미디어아트의 가능성과 한계’ ▲정선휘씨의 ‘주변미술의 융복합’ ▲김자이 ‘쉽게 알아보는 미디어아트’ ▲송승민씨의 ‘예술의 최전선에 선 미디어아트와 영상예술의 효용론’ ▲비비람팀의 ‘융합예술과 미디어아트’ ▲이조호씨의 ‘흑인음악의 이해와 djing’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된다. 문의 062-670-7944. /오광록기자 kroh@

장성군 북하면 소재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임야 매매

편백, 삼나무 수령 40~50년생 조림
50만주(현재 묘목 : 주당 3000원)

계곡이 깊어서 물이 마르지 않고
공기와 경관이 최상지로
계곡따라 산책로 8km 조성 되어 있음!

면적 107만㎡ 매가 25억
(3.3㎡당) 평당 7,700원 정도

010-6518-7123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차평등 정현철

상가·건물

- 화정동 1층상가 225㎡ 11.5억(보1.3억 월600만)
- 월산동 2층건물 매 13억5천(보1억 월680만)
- 쌍촌동 5층건물 매 16억(보 1.8억 월750만)
- 수완동 4층건물 매 24억(보2.7억 월 1,140만)
- 산정동(축석사거리) 2층건물 매24억(보2억 월1,000만)
- 월계동(철단) 3층건물 매25억(보2억 월 1,000만)
- 월계동(철단) 상가건물 매70억(보14억 월3,000만)
- 두암동 상가건물 매 42억(보7억 월2,300만)
- 용봉동 2층 상가건물 매12억(1억1천 월580만 포함)
- 풍암동 4층 상가주택 매 7.2억
- 쌍촌동 4층 상가주택 매 6.9억
- 차평동 상가 4층 임대 310㎡ 보5천만/월300만 (학원, 사무실 적합)
- 벽진동 마산마을부근 창고 230㎡ 임대 보3천만/월170만 (조정가)

대지·전용가능 녹지·전/답

- 총장로4가 중심상업지역 대지 2,270㎡ 매 41억
- 화정동 대로변 준주거지역 대지 945㎡ 매 27억
- 마록동 대지 701㎡ 매10억5천만
- 벽진동 대지 1,350㎡ 매 9억4천만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2,962㎡ 매 1.8억(주말농장적합)
- 무안군 청계면 전원주택부지 882㎡ 매 1.9억
- 화순 청룡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요양병원, 전원주택부지, 체험학습장 적합)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현영

010-5536-0382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정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무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 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